

국민의 핵심능력에 대한 진단과 교육적 시사점

-전문직 종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김남희(金南姬)*

논문 요약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의 핵심능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삶의 포괄적인 국면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핵심능력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그것의 현 수준과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또한 교육과정의 반영여부를 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에게 부족한 능력과 각 학습단계별로 중요한 능력이 규명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핵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습체제가 가진 문제점과 앞으로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 주제어 : 핵심능력, 수요자 중심의교육, 인적자원개발

I. 서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2년 대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직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데 거의

* 한국여성개발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인재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실습 및 현장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입사원의 지식 및 기술 수준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입사원들 자신도 느끼고 있는 바다. 한 채용정보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 신입사원 1,352명의 약 40%가 학교의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역시 현장 및 실험 실습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서울경제신문, 2003. 5. 20일자 기사). 이러한 결과는 현 교육체제가 인력의 공급체제(supply-side)로서 수요자측의(demand-side)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의 운영은 개인차원, 조직차원, 사회차원,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개인차원에서는 학교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취업에 성공할 수 없어지고, 따라서, 학교공부와 별도로 추가적인 보충학습 내지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조직차원에서는 쓸모 있는 인재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공급되는 인력을 자체 내 교육이나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 유용한 인재로 만들어 가는 작업까지 떠맡게 되었다. 이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환산하면 학교와 기업에서의 엄청난 돈, 시간, 에너지의 중복투자를 의미한다. 사회의 다른 분야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또한 구성원들의 학력과 전공, 취업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불안과 실업문제가 잠재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김해동, 2000).

한편, 이 문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핵심능력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핵심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전 국민이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능력을 핵심기술(key skills)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협동능력, 자신의 학습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차원뿐만 아니라(예; SCANS) 민간차원(예; ASTD), 에서도 몇 가지 핵심능력들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핵심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직업능력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접근하거나(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문해력의 발전된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등(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다소 제한적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서,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기초능력으로서의 핵심능력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라서, 본 연구는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는 핵심능력의 개념을 규명하고 둘째, 어

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출하고, 셋째, 교육이 노동시장과 유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핵심능력의 현 수준과 요구수준, 그리고 학습체제에서의 반영도를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의견을 통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II. 핵심능력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접근 방법

핵심능력(key competency)을 논하기에 앞서 개념적으로 능력(competency)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한다. 능력(competency or competencies)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정답이나 널리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Rychen & Salganik, 2000). 사전적으로는 ‘적절하거나 뛰어난 자격을 갖춘 상태나 질’로 설명된다. 한편,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McClelland(1973)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competency를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성공을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이 개념은 기업현장에서 각광을 받으며 사용되었는데 이후에 다른 학자들의 개념정의도 McClelland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업무에서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Klemp, 1980, p. 21) 혹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Parry, 1996, p. 50) 라는 정의로부터, competency는 개념상 두가지 본질 즉, 개인의 과업수행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라는 점과 단순히 지식만이 아닌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 Rychen과 Salganik(2000)는 기업의 콘텍스트(context)를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들은 competency가 지식, 기술, 태도의 복합체이고, 학습될 수 있다는 전제위에, 다음의 네가지 개념적 요소들을 key competencies에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그것이 다기능적(multifunctional)이라는 것, 둘째, 사회의 여러 분야에 통용될 수 있다(transversal)는 것, 셋째, 고차원의 복잡한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넷째, ‘know-how’라든가 지적, 비판적 능력 내지는 의사소통능력, 상식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다국면성(multidimensional)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competency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과학에서 정의될 때에 지식, 기술, 능력의 복합체라는 점에서는 기업의 콘텍스트에서의 개념정의와 일치하나, 특정과업에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능력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 육성되는 핵심능력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보다 넓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본고에서 핵심능력은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삶의 국면이란,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및 직업생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한 인간이 평생을 두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성취를 하며 만족스런 삶을 살고, 직업인으로서도 생산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능력요소들이 인생의 전 시기에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정도와 요구되는 수준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Smith와 Marsiske(1997)는 인간의 생산성과 수행 향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이란 넓은 범위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초능력으로서의 일반능력은 상대적 구인(relative construct)으로 이해하여야 하며(Guthrie & Kirsch, 1988), 인간의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Freud, Havighurst, Erickson, Levinson 등 인간의 발달과 발달단계에 따른 과제에 대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연구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단계가 있고, 이는 인간의 모든 국면에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으며, 학자들간에 구체적으로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또한 기존의 교육단계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능력에 대한 요구수준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유아단계를 제외하고 크게 기초교육단계인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 및 직업교육의 세단계로 나누어 달리 접근하고자 한다.

1. 핵심능력에 관련된 국제적 연구동향

핵심능력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전략적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규명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가들의 핵심능력 관련 연구 경향을 비교 종합하면 그 접근법과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영국은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틀 속에서 국민이 구비해

야 할 주요 능력(key skills)을 원래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에서 상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 훈련, 직업세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간주되는 의사소통능력, 수의 적용, 정보기술, 문제해결능력, 학습수행능력 증진, 타인과의 협동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DfEE, 1998).

미국의 경우, 핵심능력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 노동성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안인 SCANS의 보고서(SCANS, 1991)에 따르면 현재 혹은 미래의 성인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기본능력(foundations)과 직무현장능력(five competencies)으로 나누고, 전자에는 기초능력, 사고력, 개인적 자질 등을, 후자에는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처리능력, 시스템 능력, 기술활용능력을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이 설립한 교육 훈련 및 인력 개발을 위한 협의체인 ASTD에서는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기술로서 기초능력, 기본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응력, 개인관리 능력, 집단능력, 영향력을 제시하였다(Carnevale et al., 1990).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문해력, 특수직무능력, ICT 능력, 주요 소프트웨어 기술, 노동시장전환기술로 규정하고 정규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이러한 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공교육 향상의 질향상을 위해 구성된 Karmel 위원회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정보획득능력, 정보전달능력, 논리적인 절차의 적응능력, 한 개인으로서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Werner, 1995). 또, 의무교육 이후 청소년들의 교육 및 훈련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Finn 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직업기초능력으로 언어와 의사소통능력, 수학능력, 과학적, 기술공학적 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규명한 바 있다. 이것은 이후 Mayer 위원회에서 다시 7가지로 재분류 되었는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조직능력, 아이디어와 정보의 의사소통능력, 직무활동의 기획 및 조직 능력, 팀과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능력, 수리적 아이디어와 기법의 이용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공학이용능력 등이다. 이후 문화이해능력이 추가되었다(Werner, 1995).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 정책으로 차용되고 있는 선진국의 핵심능력은 주로 직업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 규명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하위요소들은 국가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정의적인 능력(주로 태도)과 기술적인 능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것이 직업세계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개별국가에서 핵심능력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경향이 있다. OECD는 핵심능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eSeCo Project¹⁾, 즉,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을 수행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OECD의 Indicators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INES)와 관련된 Cross-Curricular Competencies(CCC), 문해력 조사 등에서 다루어진 능력을 개념적으로 검토하여, 능력 측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CCC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넓은 의미의 교육의 결과물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능력의 영역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의 CCC를 짚 수 있는 도구로서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의 개발이 논의되었다. 이 서바이벌 키트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세계, 일상에서의 문제해결능력과 결정적인 주요 상황, 의사소통 기술, 자율성의 정도, 중요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의식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Salganik, Rychen, Moser, & Konstant, 1999). 따라서, 기존의 선진국들의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핵심능력 논의가 사회과학적 맥락으로 확대되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단면에서의 능력으로 포괄적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UNESCO는 예외적으로 핵심능력에 대한 논의 훨씬 이전부터 문해력(literacy)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해왔고 OECD에서도 문해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문해 연구의 경향은 1950-60년대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에 국한되는 제한적 단순문해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1970-80년대에 문자 문해보다 훨씬 진보된 개념인 생활문해, 기능문해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기술(basic skills)로서의 문해라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Kamp, 1997).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ALL(Adult Literacy and Lifeskill study)의 연구프로젝트에는 하위 능력요소로 전통적인 3R 외에 문제해결력, ICT 문해, 협동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Drucker(1994)가 지적하듯이 전통적인 문해 수준보다 훨씬 발전된 개념인 보편적 문해(universal literacy)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요인으로서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전개된 주요 선진국의 핵심능력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살펴볼 때, 국제기구에서의 핵심능력에 대한 접근은 개별적 국가의 그것보다 광범위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 생활 전반에서

1)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는 OECD의 3년 연구 프로젝트로서 competencies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간학문적 연구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 연방 통계청이(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운영하며, 미국의 교육성 (US Department of Education)과 통계청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이 주로 관여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구되는 일반적 능력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2. 국내에서의 핵심능력 연구와 하위요소

최근 몇 년간 국내 여러 연구자나 연구기관에서는 다투어 주요 선진국의 핵심능력에 관한 연구를 전략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들어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로 이무근 외(1997), 정철영 외(1998)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먼저, 1995년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무근 등(1997)은 주로 외국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주로 입직단계의 청소년과 대학졸업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직업기초능력으로 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경영능력, 기술활용능력, 개인적인 자질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정철영 등(1998)은 역시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 현장의 근로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을 물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주로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기초능력의 차원에서 핵심능력을 규명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 생활의 단면 중 주로 경제적 삶에서의 성공적 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핵심능력을 직업이나 조직생활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즉, 핵심능력을 직업생활을 포함하는 인간의 개인적 삶과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최소 필수 능력으로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일반적 능력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DeSeCo 등 최근 국제기구에서 전개하여 온 핵심능력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장은 개인생활 및 직업생활, 사회생활로 나누고 각각에 요구되는 능력의 요인들은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한 지식, 기술, 태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즉, 행복한 개인생활 및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정보활용능력이 포함되며, 한편,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 상호 신뢰하는 태도, 민주시민의식, 준법정신, 협동의식, 자원봉사의식, 예의와 친절, 국제화의식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맥락에서는 핵심능력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가능한 능력요인을 일단 잠정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학계 및 기업현장의 전문가들(각각 3인)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질적인 검토를 받아서 핵심능력의 하위 요인들을 도출한 것이다²⁾. 선행연구검토를 통해서 논의되지 않았던 자원봉사의식이나 예의와 친절 등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능력의 하나로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능력기반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수요측면(demand-side)의 요구와 필요를 현장의 교육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아래, 현 학습체제 내에서 우리 국민의 핵심능력의 수준과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능력의 강조점 및 반영정도 등을 진단함으로써 능력중심의 교육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조사를 위한 대상자는 학습체제를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의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상정하였다. 전문직에 대한 범주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 기준에 제시된 8개 범주와 직업군을 따랐다. 구체적으로는 (1) 과학: 각 과학분야 학자 혹은 연구원 등; (2) 컴퓨터관련: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넷 및 웹 전문가 등; (3) 공학: 건축가, 조경 건축가, 도시설계가, 전기·통신·반도체·환경 등의 기술자 등; (4) 보건의료: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5) 교육: 교수 및 교사, 강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6) 행정, 경영 및 재정: 관리자급 공무원, 기업가, 총무·인사·회계전문가, 세무사, 투자분석가 등; (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사서, 번역가, 작가, 기자, 예술가, 연기자, 예술기획가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8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각 분야별로 평균 65명의 쿼터를 정하고, 각 직업군에 속해 있는 전문가 집단의 명부를 기초로 하여 조사원들이 일대일로 전화연락을 통하여 접촉하여 설문조사에의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참여수락시, 방문일시를 약속 받은 후 방문, 대인 면접 및 자기기입 방식을 통해 설문결과를 수합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유효한 데이터³⁾는 총 518 케이스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2)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핵심능력과 하위요소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의 절차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본 연구의 주제의 중요성과 시대적인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유현숙 외 (2002)의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 연구(I)'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하였다. 하위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는 전문분야가 고려되었으며, 응답자 집단의 특성은 <표1>에 정리되어있다. 분석결과는 먼저, 전체에 대한 기술과 변인에 따른 집단간 특징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5단계 척도로 답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ANOVA를 통하여 집단별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한 후 $p<.05$ 혹은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는 것에 한해서 그 결과를 서술하였다.

<표1> 조사 참여 응답자 집단의 특성 (n=518)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	376	72.6
	여	142	27.4
연령	30세 이하	100	19.3
	31-40세	184	35.5
	41-50세	171	33.0
	51세 이상	63	12.2
전문분야	과학	62	12.0
	컴퓨터관련	70	13.5
	공학	65	12.5
	보건의료	62	12.0
	교육	64	12.4
	행정/경영 및 재정	71	13.7
	법률/서비스 및 종교	60	11.6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64	12.4
계	518	100.0	

IV. 연구결과

1.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능력의 수준

먼저,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그 능력을 건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능력과 행복한 개인생활 및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 구분하여, 문헌에 근거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중요한 능력들을 가설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능력들을 어느 정도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가. 행복한 개인생활 및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

행복한 개인생활 및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은 8가지 영역(의사소통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커리어

<표2> 행복한 개인생활 및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

(1점: 매우 부족하다 - 5점: 매우 충분하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의사소통능력	읽기, 쓰기, 셈하기	518	4.09	.86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517	3.17	.98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516	3.31	.91
	소계		3.53	.74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	518	3.06	.92
	외국어 능력	516	2.53	.85
	소계		2.79	.7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발적 학습동기 및 목표설정	518	3.14	.90
	도전 정신	516	3.16	.86
	소계		3.15	.81
문제해결력	독립심	518	3.41	.80
	의사결정력	517	3.31	.82
	장애요인 극복요인	518	3.22	.82
	소계		3.31	.70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518	3.33	.88
	창의력	518	2.97	.90
	소계	517	3.15	.77
대인관계능력	타인과의 협동능력	518	3.18	.82
	자신감	518	3.48	.74
	리더쉽	517	3.12	.84
	소계		3.26	.65
커리어 및 직무수행능력	직업전환능력	518	2.88	.85
	구직기술 능력	517	2.94	.81
	직장 및 조직에 대한 이해	518	3.37	.79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성	517	3.52	.84
	소계		3.18	.64
정보활용 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515	3.44	.82
	컴퓨터 활용능력	517	3.58	.85
	소계		3.51	.73

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 정보활용능력)으로 나누어 모두 21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부족한 능력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이 두드러졌고, 특히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반응이 나왔다. 의사소통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은 비교적 보통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은 충분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중 직장 및 조직이해, 전문성 등은 비교적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직업전환능력이나 구직기술능력 등 성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분야별로 볼 때, 과학분야의 인사들이 주변의 일반시민들이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M=2.66)과 창의력(M=2.53), 협동능력(M=2.66) 등에서 보통 이하라고 답함으로써 다른 집단보다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타문화 존중에 대하여, 과학분야(M=2.71)를 비롯한 교육분야(M=2.96), 행정경영 분야(M=2.94)의 전문가가 보다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법률, 종교,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시민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성(M=3.15)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우리의 법률서비스, 종교서비스 등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아직 전문적으로 발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

우선,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 상호 신뢰하는 태도, 민주시민의식, 준법정신, 협동의식, 자원봉사의식, 예의와 친절, 국제화 의식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주변의 동료나 시민들에게 부족한 능력으로는 자원봉사의식과 국제화 의식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능력들은 대체로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의와 친절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학 분야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능력에 있어 부족하다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표3>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

(1점: 매우 부족하다 - 5점: 매우 충분하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호 신뢰하는 태도	518	3.09	.85
민주시민의식	517	3.05	.84
준법정신	514	2.99	.95
협동의식	516	3.04	.87
자원봉사의식	518	2.51	.91
예의와 친절	512	3.22	.87
국제화 의식	518	2.84	.93

더 보인 반면, 컴퓨터 관련 분야, 공학분야, 보건의료분야의 인사들은 그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2.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능력의 강조점

초·중등·고등 및 성인의 각 학습단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과 시민생활에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선택항목을 가지고 각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능력의 강조점 두 가지를 고르게 하였다.

가.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능력 두 가지

먼저 초·중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고력이 언급되었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이 성인 및 직업교육 단계에서는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언급됨으로서, 단계별로 중복된 응답이 없었고, 따라서 각 학습단계별로 강조되어야 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4>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능력 두 가지

단 계	주요능력	빈도	비율(%)
초·중등단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279	26.9
	사고력	248	23.9
고등단계	문제해결력	213	20.6
	정보활용능력	193	18.6
성인 및 직업교육단계	커리어관리/직무수행능력	331	31.9
	대인관계능력	261	25.2

전문분야별 응답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학분야(17.1%)와 보건의료 분야(14.5%)의 전문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과학분야의 전문가는 초·중등단계에서의 대인관계능력(3.9%)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각 전문분야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해결력(28.9%)을 매우 강조한 반면, 법, 종교,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는 사고력(18.3%)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성인 및 직업교육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할 주요 능력으로 세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은 정보활용능력

이었고, 변인에 따른 차이없이 거의 모든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단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23.4%)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나.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태도 두 가지

학습단계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주요 태도 두 가지가 무엇이나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초·중등 단계에서는 예의와 친절, 협동의식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국제화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이, 그리고 성인 및 직업교육단계에서는 상호신뢰하는 태도와 국제화 의식이 거론되었다. 국제화 의식은 고등교육단계와 성인 및 직업교육 단계에서 모두 거론됨으로서, 앞서서도 보았듯이 일반 시민들에게 부족한 능력중의 하나로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성인들에게 매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태도의 하나임이 드러났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5> 학습단계에 따른 주요 자질 또는 태도 두 가지

단 계	주요태도	빈도	비율(%)
초·중등단계	예의와 친절	244	23.6
	협동의식	238	23.0
고등단계	국제화 의식	259	25.0
	민주시민의식	232	22.4
성인 및 직업교육 단계	상호신뢰	255	24.6
	국제화 의식	235	22.7

전문분야별로 볼 때, 집단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과 태도에 대한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과학분야(25%)와 교육분야(20.7%)의 전문가들은 민주시민의식을 예의와 친절, 협동의식 만큼 혹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응답에서는 공학분야의 전문가의 경우에 상호신뢰하는 태도(21.4%)를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공학 분야에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직업윤리나 기업윤리에 대한 논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및 직업교육 단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건의료 분야(10.5%)와 법, 종교, 서비스 분야(12.5%)의 전문가들이 예의와 친절의 중요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욱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한 자질과 태도를 더욱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다. 주요능력의 학습단계별 반영정도

각 학습단계별로 주요능력들이 학습목표로 반영되고 있는 정도를 질문하였을 때, 모든 학습 단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 실업교육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현 실업교육체제가 능력형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직무수행 관련 교육·훈련분야는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6> 주요 능력들의 단계별 학습목표에의 반영도

(1점: 전혀 반영안됨 - 5점: 매우 잘 반영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초·중·고 교육	515	2.64	.78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514	2.49	.70
전문대학 교육	516	2.63	.72
대학교육	513	2.61	.70
직장이외의 성인교육	515	2.52	.79
직무수행 관련 교육·훈련	511	2.82	.84

이러한 결과는 전문분야별로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학분야와 행정경영분야 전문가들은 모든 학습단계에서의 주요 능력의 학습목표에의 반영도에 다른 집단보다 더 비판적이었고, 반면에,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집단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또한, 공학분야와 법, 종교,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은 비교적 전체 집단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단, 컴퓨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직무수행 교육훈련에서 주요 능력들의 학습목표에 대한 반영도가 유일하게 보통이상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관련분야에서의 교육훈련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현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능력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을 준거로 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고·대학 교육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질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과학, 행정경영분야의 전문가집단은 전체집단의 평가보다 낮은 평가를, 컴퓨터관련, 공학, 보건의료, 교육분야의 전문가집단은 그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항목도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능력형성의 관점에서 현 제도교육의 체제는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7> 능력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도교육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점: 매우 동의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길러준다	518	2.53	.80
학습단계별 성취능력에 대한 기준이 있다.	518	2.70	.82
성취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한다.	518	2.43	.76

V. 논의 및 결론

학교교육체제를 통하여 배출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가하는 우리 국민의 핵심능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평균점 이상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 부족한 능력으로 거론된 것을 중심으로 보자면,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 중 자원봉사 의식과 국제화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개인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능력 요인 중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능력, 특히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업전환능력이나 구직능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이 세계시민으로서 살아나갈 바탕이 되는 태도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경제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커리어 관리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자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현 인적자원이 가진 주요 취약점으로 자주 언급된 바 있다(박세일, 2001).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의 인식, 지구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 등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은 외국어 교육, 타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교육비전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야 한다(김영철 외, 1996).

후자는 우리 사회가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조직구조가 변화하면서, 평생고용의 관행이 사라지고, 업적중심으로 인사가 바뀌는 세대와 관련지어(양인봉, 2000), 서구사회에서처럼 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적어도 몇차례의 직업적 전환 내지 변화를 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한 준비나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실제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김태준 외, 2002), 성인들은 그들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

이 직업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물어보았을 때, 직업전문성, 자기학습, 목표의식, 창조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협동, 리더쉽, 시민의식을 포함하는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 및 경력 상담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양인봉, 2000).

학습단계별로 볼 때 초·중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고력이 언급되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이, 성인 및 직업교육단계에서는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었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고력에 대한 강조는 현재의 교육과정의 모든 단면을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노울즈에 따르면(Knowles, 1975), 자기주도적 학습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육목표의 설정, 교수학습방법의 선택,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의 방법 등에 있어서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특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내적 여건이 부실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학교가 아닌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사교육 증가의 이유를 온전히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주는 교육과정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학원이 일부분 채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김양분, 김미숙, 2002) 우리 나라 중고생의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점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원에 의존하며 공부해온 아이들은 책과 씨름하며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해 대학진학 후에도 다시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조선일보 2003년 6월 23일 기사).

정보화 사회의 기본인 컴퓨터 활용능력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검색, 변형 및 적용능력을 의미하는 정보활용능력은 각 분야의 여론 주도층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핵심능력으로 꼽은 능력이다(유현숙 외, 2002).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훌륭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보활용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정보와 지식의 거대한 집산지로서, 그러한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핵심인력양성을 위해 그 책무성을 다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인 및 직업교육단계에서 중요한 능력은 역시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등이 언급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점차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는 직업 현장에서 성인의 경력 개발과 관리라는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지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직무수준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하여, 혹은 전직 및 이직 등의 변화가 발생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가치가 상존하며, 사회문화적 변화가 급격한 환경 속에서 직업 분야에서 빠른 적응능력의 습득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숙달된 인적자원을 통해 국제경쟁 사회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로지도와 경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태준 외, 2002).

학습단계별로 강조되어야 할 태도 중에서는 초·중등 단계에서 예의와 친절, 고등단계에서 국제화 의식과 민주시민의식, 성인 및 직업교육단계에서는 상호신뢰와 국제화 의식이 거론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의와 친절은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능력요인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민기초교육 단계의 덕목으로서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의 하나로 예의와 친절이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춘 국제화 의식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족한 능력이면서, 따라서 성인들에게 매우 강조되어야 할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가 더욱 좁아지고, 국가간의 교류가 증대되면 될수록 앞으로 이러한 능력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이 이러한 덕목을 길러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대학사회에 퍼지고 있는 활발한 국제교육 및 학생연수 활동, 기업체에서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종업원 교육 훈련과정, 혹은 매스컴 및 NGO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들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능력형성의 관점에서의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주요능력들을 얼마나 학습체계에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모든 학습단계에서 평균이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업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장원섭 외, 1999).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경험 및 실습 중심의 교육, 현장성 있고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에 대한 요구는 높는데 비해, 교사들이 보기에 현장실습이 본래의 교육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내용의 현장적합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계 교육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맞물려 지식기반 사회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결정적인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핵심능력을 현재의 초·중·고등교육이 얼마나 잘 육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현재의 제도교육은 학습단계별 능력의 성취기준 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고,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조차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교육과정이 핵심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계적으로 핵심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능력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의 수준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을 관리하고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학습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일이 국가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양분, 김미숙 (2002). *입시학원의 교육실태분석* (연구보고 2002-1).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박덕규, 박재윤, 박영숙, 김혜숙, 김홍주, 이명준 (1996). *한국교육비전 2020*.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김남희, 김주섭, 정지선 (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 설정 및 성인 학습체제 질관리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 RR 2002-19-5). 한국교육개발원.
- 김해동 (2000).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직업능력개발연구*, 3(1), 51-79.
- 박세일 (2001). 국가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 (제7차 KRIVET HRD 정책 포럼 “지식 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경제신문 2003. 5. 20일자 (정치/사회) 기사: 기업 66% 대학교육 불만족.
- 서울경제신문 2003. 5. 20일자 (정치/사회) 기사: 인력수급 틀 다시 짜자 “일그러진 고등교육”.
- 양인봉 (2000). IMF 시대의 진로지도. *학생연구(동아대 학생생활 연구소)*, 28, 5-23.
-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명 (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연구보고 RR 2002-19). 한국교육개발원.
- 이무근, 이용환, 정철영, 배진환, 최애경, 이종성, 정태화, 나승일 (1997).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기본 연구 99-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송병국, 이종성 (1998).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선일보 2003. 6. 23일자 (기획) 기사: 학원중독 사회 “학원만 의존하는 아이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연구보고서.
- Carnevale, A. P., Gainer, L. J., & Meltzer, A. S. (1990). *The essential skills employers want*. San Francisco: Jessey-Bass Inc.
- DfEE (1998).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A brief guide*. [On-line]. Available: <http://www.open.gov.uk/dfee/gnvq/gnvq.htm>.
- Drucker, P. (1994).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Guthrie, J. T., & Kirsch, I. S. (1988). *What is literacy in the United States?* (Tech. Rep. No. 5).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Kamp, M. (1997). European traditional in literacy research and measurement. In *Adult basic skills: Innovations in measurement and policy analysis*

- (Tuijinman, A. C., Kirsch, I. S., & Wagner, D. A.(eds.), pp. 139-162.
- Klemp, G. O. (Ed.). (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Washington, D. C.: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 NY: Association Press.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Parry, S. R.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July, 48-56.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A contribution of the OECD Program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INES General Assembly 2000.
- Salganik, L. H., Rychen, D. S., Moser, U., & Konstant, J. W. (1999). *Projects on competencies in the OECD context: Analysis of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SCANS (1991). *What work requires of school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Labor.
- Smith, J. & Marsiske, M. (1997). Abilities and competencies in adulthood: Lifespan perspectives on workplace skills. In Tuijinman, A. C., Kirsch, I. R., & Wagner, D. A. (Eds). *Adult basic skills: Innovations in measurement and policy analysis*. Cresskill, NJ: Hampton Press.
- Werner, M. C. (1995). *Australian key competenci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outh Australia, Australia: National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논문접수 2003년 9월 4일/ 1차심사 2003년 11월 11일/ 2차심사 2004년 1월 15일

* 김남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교육학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인적자원개발 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은 "일과 삶 사이의 균형: 한국 여성 직장인의 직업 성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오해-경제적 효율성이 전부인가?" 등이 있다.

* email: knh@kwdi.re.kr

Abstract

Assessment of Key Competencies and Reflection on Education - Professionals' opinions -

Kim, Nam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key competencies required for Korean people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systems in terms of competency development. More than 500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were surveyed to reflect opinions of demand-side which utilizes manpower educated and developed through the school systems. It was found that Koreans lack volunteerism and international mind and attitudes. They are also deficit in career management, especially job transfer skills or job searching skills need to be improved.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level of importance in key competencies differs by the level of school systems as well.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ency formatio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s were evaluated not so successful in general, failing to identify necessary key competencies and provid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ir achievement.

Key words: Key skills, Life skills, Competenc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